

개 회 사

한줄기 바람이 생명의 소식을 전하고, 창공의 새들은 자유를 노래하는 계절입니다. 만발한 꽃향기와 짙어가는 신록이 대지를 장엄하는 오늘, 우리는 부처님의 공덕을 찬양하고 귀의하고자, 저마다의 마음을 맑고 바르게 하여 연등을 밝히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나누는 이 빛은 지혜의 눈이며, 자비의 손길입니다. 지혜의 길이 열리면 자연과 사람, 사람과 사람이 서로 의지하고 서로를 감싸 안으며, 모든 아픔과 슬픔을 함께 이겨내고 나뉘는 자비의 길이 저절로 열리게 됩니다. 이 길 위에 서면 다툼과 원한이 사라지고 평화가 찾아옵니다. 모두가 행복하고 상부상조하며, 상호 존중하고 감사하며 사는 행복한 세상이 열립니다.

뒤바뀐 헛된 생각을 한번 떨치면, 모두가 하나의 그물에 얹혀있는 공동체임을 깨닫게 되고, 사회와 민족 그리고 자연과 세계가 하나임을 올바르게 인식하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사랑과 자비가 넘치는 따뜻한 사회 공동체가 복원되고 민족적 갈등과 분단을 해소하는 민족 공동체의 구현을 위해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봄향기가 남에서 북으로 흘러 오르듯, 맑은 구름이 북에서 남으로 흘러 내리듯, 이제 남과 북의 70년의 경계는 부질없는 허물입니다. 오늘 밝힌 연등은 아무런 차별도 경계도 없는 스스로의 서원이자 서로에게 굳은 약속입니다. 오늘을 축제로 받아들이는 것 또한 모두가 하나의 즐거움에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1년여 동안 세월호의 수많은 아픔과 고민은 이제 무뎌지어 쉬 여기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고, 가족의 간절한 호소만이 맴돌지 않도록 마음을 새롭게 다져야 하겠습니다. 더불어 지진으로 충격과 고통에 휩싸인 네팔은 멀리 떨어진 이국이 아니라 부처님이 오신 곳, 우리들 마음의 고향입니다.

모두가 우리가 비출 수 있는 마음의 거리에 있습니다. 마음으로 밝힌 소중한 빛이 온전하게 전해지길 바랍니다. 고통을 나누니 마음은 맑아지고 빛은 더 밝고 투명합니다.

오늘 소중하게 밝힌 빛으로 우리가 걸어가는 길을 밝힙니다. 이웃이 걸어가는 길을 밝힙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 우리의 삶이 올바르게 생동할 수 있도록 연등을 밝힙니다. 생명존중과 상생의 가치가 가장 우선하는 사회, 그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사회이고 이 땅에 구현하는 불국토입니다.

맑은 향기와 밝은 빛이 가득한 날입니다. 이 땅에 지혜의 향과 자비의 온정이 가득하여, 모두의 마음이 풍성한 그 길로 당당히 함께 걸어 나아갑시다.

불기2559년 5월 16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